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장과 조선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스키장 건설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이 산세험한 지형조건과 장마철의 불리한 일기조건을 극복하면서 20여개 대상의 건축물과 조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쳐 끌낸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들만이 창조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호텔과 봉사 및 숙소건물, 스케트장 등 여러 대상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시공정형을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호텔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층들과 요소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봉사 및 숙소 건물을 보시며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망적으로 숙소를 비롯한 봉사 시설들을 더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스케트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 줄 수 있게 스케트를 내주는 장소를 따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삽도설치정형을 알아보시고 올해 겨울부터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해발고가 1,360여m인 대화봉정점까지 삽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스키주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공법의 요구대로 스키주로닦기와 다음을 질적으로 한 결과 많은 무더기비가 내린 이번 장마철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26일 건설장을 돌아볼 때와 비교해보면 마식령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하시면서 스키장건설에서 세인을 놓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사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마식령지구에서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시해놓은 여러 가지 창안품과 발명품들을 장시간 걸쳐 보시면서 최근에 이룩한 인민군대의 군사과학기술성과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발한 첨단기술기재들을 보시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종자로 잡은 것이 좋다고 치하하시였고 원성능을 높이고 보관과 안전성을 개선한 기재들의 도입실태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제작한

기재들을 보시면서는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연구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훈련과 군무생활에 필요한 장구류들과 기재들을 군인들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기뻐하시였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한 축전지도 만족하게 보아주시였다.

여러 가지 통신기체들과 검측설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세계적으로 발전된 제품들의 성능과 기술적지표들을 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 종전의 기재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국산화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명품, 창안품들을 보니 인민군대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적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군사과학기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진행하게 될 조선인민군 제27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의도대로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군사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40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40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꿈결에도 뻗고 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부대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보

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가 걸어온 자랑찬 행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부대의

발전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이루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여

러가지 창안품들을 자체로 연구제작한 정형도 료해하시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대한 당의 사상을 실천으로 밟들고 있는 군부대지휘관들의 진취적인 투쟁기

풍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장병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선명선생의 서거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세계평화연합총재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 세계평화연합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한학자 박상권 세계평화연합사무총장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의 화합과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신 추모의 말씀을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한학자총재를 비롯한 유가족이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며 세계평화연합의 모든 일 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박상권 사무총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유가족과 세계평화연합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개막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19일 라선시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참가자들은 라선전시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꽂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라선시민위원회 위원장인 라선군, 관계부문과 라선시내 일군들,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들, 출품자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조선에서 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공동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담보와 법률적기초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라선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황철남의

며 폭넓고 다방면적인 경제무역거래와 상품소개, 과학기술교류 등을 더욱 활발히 벌리는데서 좋은 계기로 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도이췰란드, 미국, 일본, 중국대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120여개 단위에서 출품한 경제설비와 강철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과 경공업제품, 식료일용 및 의약품, 건재 및 화학제품들과 품전기재 등을 돌아보았다.

이날 전시회 개막과 관련한 연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은 공화국의 변함없는 원칙적립장

지난 14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차차례 진행되었던 북남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이 국적으로 타결되어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합의서에는 개성공업지구 남측인원들의 신변 안전담보,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 공업지구기업들에 대한 국제적수준의 기업활동증보장 등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다.

북남당국사이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서체택으로 완전 평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정상화되게 되었다. 이것은 마땅히 북남관계개선에도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북남관계가 오랜 단절의 고통을 딛고 관계개선의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근처에는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원칙적

립과 성의있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8.15 해방과 더불어 외세가 남조선을 강점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조선반도에는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수천년을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제 더이상 민족분열의 쓰라린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지켜볼수만 없다.

조국강도가 두동강나 불행과 고통속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이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결한다면 북남모두에게 리로울것이란 하나도 없다.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쌍방사이의 대결이 계속된다면 치에 따른 피해가 커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원칙적립장과 의지를 명백히 천명하는 대법하고 아량있는 제

하였다.

지난 6월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단화문을 통하여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 등 북남관계를 허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염두해 제의하였다.

남조선의 이전 《정권》의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으로 인하여 6.15의 성과물들이 마사지고 북과 남사이에 포탄이 오가는 살벌한 국면까지 펼쳐졌던 때에도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허물고 화해와 평화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 정초 공화국은 북과 남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며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원칙적립장과 의지를 명백히 천명하는 대법하고 아량있는 제

안들을 담은 특별단화를 발표하여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실무회담의 초점이었던 재발방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았다.

1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단화를 통하여 지난 6월과 7월에 내놓았던 흥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직접실무회담개최와 북남당국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거듭 남측에 제의하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공화국의 제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북의 진정한 자세와 성의있는 노력을 바로 알고 북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힘을 한다면 겨레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높아지고 전도가 양양할수록 조국의 강성 번영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신 철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의 애국에 죽어 민의 선군장정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다.

한세 기전에 만하여도 망국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자주 강국의 위용을 높이 멀치게 된 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대수님들의 불멸의 선군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예로부터 조선

은 지정학적 위치로 하여 렬강들이 탐내는 반도로 되어온 첨천리 강도는 그들이 세력권다툼을 하는 각축전 마당으로 되기도 했다. 하기 때문에 유럽의 한 유명한 예술가는 당시 자기의 그림에서 조선을 렬강들이 드리운 낚시대에 물려 봄부림치는 물고기로 묘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날 힘이 없어 봄부림쳐야만 했던 악소국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위업을 끊임없이 이으시며 조국의 선군천만리를 걸고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여우리나라는 오늘 강성국 가건설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1960년대에 선군의 첫자욱을 새기신 그때로부터 수십 성상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위한 현신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이 생사기로

에 처했던 1990년대 종엽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어 사회주의도 지키고 겨례의 운명도 지켜주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

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을 이어가는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사회주의의

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

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

장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

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

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

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을 다잡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신 장군님이 시기에 약전식사, 약전리발, 약전솜옷, 쪽잠과 채기밥과 같은 무수한 일화를 남기시며 멀고 험한 전선길을 웃으며 헤쳐가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이의 애국현신의 선군천

만리가 있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한 6.15공동선

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

언이 경제발전과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남북공동선

연 실천현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련합 인터네트홈페이지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령도의 결과 북은 자주권과 존엄을 지켰을뿐 아니라 라

막강한 군력과 경제발전의 도

약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며 미국 하와이

동서방연구

센터 수석연구원은 6.15공동선

언은 바로 선군정치의 산물

이다. 군력으로 밀반침된 북의 자주통일로 선이

있기 위해 조선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할 것을 확약한 협약적인

자주통일선언이 나오게 되었다고 공감을 토로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뜻과 위업을 이어 민족의 운

명과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건

설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림없는 의

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정

치를 높이 드신 그이의 정

력적인 정도에 의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은 굳건히

담보되고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

투쟁은 거창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겨례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령도에 의하여 이 땅 가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기업소들, 사회주의 리상흔들이 새로 일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철의 기지들과 대규모화학공업기지에서 주체철생산의 장훈을 부르고 비날론폭포가 쏟아져 온 나라에 대경사의 기쁨을 안아왔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부강할 조국의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공업대회에도 참석하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

들이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라고 찾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이런 기적을 안아왔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국경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시종일관한 노력

북과 남사이에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북남적십자실무회담이 이루어진 소식은 온 겨레를 기쁘게 해 주고 있다.

지금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공화국이 련이어 취하고 있는 대법하고 성의 있는 제안들과 노력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오려는 공화국의 진지한 자세와 확고부동한 립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 날부터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해방후 내외분렬주의 세력의 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던 때에 공화국은 국토환경파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민족단합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였다.

남조선에서 《단선》이 강행된 후에도 공화국은 북남의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일관한 립장을 지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50년 6월 19일에는 공화국 최고인 민희의 상임위원회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 법기관으로 협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 것을 제의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수많은 협력적인 제안과 방안들을 내놓았다.

북남조선간에 정상적인 체신우편련락을 진행하기 위해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한 조선민주주의 서한, 공화국령에서 남조선어민들의 물고기 잡이 작업 조건을 보장할 것을

예전 한 1955년 5월의 내무상과 수산상의 성명, 평양에서 진행되는 8·15 해방 10돐 경축 행사에 남조선의 《국회》, 정당, 단체 및 교육, 문화, 종교단체들과 해외조선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1955년 6월의 8·15 해방 10돐 기념 준비위원회의 편지, 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남조선에 전력을 보내줄데 대한 1955년 11월의 전기상(당시) 성명,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재일조선 청년 학생들이 공화국에 들어와 공부할 것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환영하며 어떠한 학교를 불문하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국비에 의한 교육을 보장할 때 대한 1956년 1월의 공화국 내각 결정 제7호, 북남조선의 어느 장소에서나 전조선 청년 학생들의 체육, 예술 축전과 명승고적의 담사, 북남간의 호상 방문과 과학 연구 발표회를 조직하며 나아가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도 함께 참가할 때 대한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당시)의 제의 등은 어떻게 해서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50년 6월 19일에는 공화국 최고인 민희의 상임위원회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 법기관으로 협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대한 결의였다.

1980년에 고려민주련방 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고 통일 국가가 실시하여 할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민족단합 5개방안, 평화보장 4원칙 등도 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또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지난 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매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립장을 가장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공화국의 숭고한 표호를 조직하며 나아가서 통일에 국의 립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 세기以來 들어와 두 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자주통일의 리정통

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마련되어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은 것도 공화국의 통일 노력이 안아온 자랑찬 민족의 성과물이다.

지난 리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온갖 도발을 일으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지만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또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지난 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매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립장을 가장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공화국의 숭고한 표호를 조직하며 나아가서 통일에 국의 립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과 남이 민족과 통일을 우선시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나갈 때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지 고야 말 것이다.

본사기자 명금통

뜻과 마음을 합칠 때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마음과 뜻을 합쳐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서가 채택된 것은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 북과 남의 각계층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가들은 물론 남조선의 여야 당들도 일치하게 합의서 채택을 환영하고 있다.

합의서의 채택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개성공업지구가 발전적 정상화의 길에 들어

앞당겨올 수 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가지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북과 남이 관계를 개선하면 거기서 리듬을 보는 것은 우리 민족이다. 또 한퍼즐을 나누는 동족간에 신뢰와 단합을 두터히하고 민족공동의 발전을 이루려면 민족공동의 력사적 역할에 맞게 실현될 수 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

쟁에서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므로 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서 비록 북집한 문제들이 있고 장애들이 있지만 민족중시의 자세에서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합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으며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

라 광철

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겨 성취하기 위하여 서는 조국통일 3대 현장을 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 현지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 현장이다. 조국통일 3대 현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려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에 민족에 대한 구현하고 있다.

조국통일 3대 현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 동안 존재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 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과 남이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内外에 업속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방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루려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 서 가장 공정하고 순종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

북남관계개선, 조선반도 평화 실현을 요구

남조선의 《광복 68주년 8·15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정부》가 북남관계 개선, 조선반도 평화 실현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종목, 동민회 총련맹 의장 리광석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계속되는 전쟁연습책

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정전협정으로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루어나가도록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어떤 정세와 환경 속에서도 조국통일 3대 현장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겨레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조국통일 문제는 본질

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끌어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민족 내부의 그 어떤 모순이나 대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분열은 전적으로 외세의 대조선지배야망에 의한 것이다.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세는 우리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

고 오늘도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염려 하고 하고 있다. 우리 겨레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대결한다면 조선민족은 언제 가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

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하고 통일하는 것은 민족사의 핵심적 척도이다.

어느 민족이든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면 민족의 단일성이 파괴되고 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화해와 단합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루할 수 있는

근본조건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

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가진 단일 민

뉴질랜드백두-한나오로바이려행단 출정

뉴질랜드백두-한나오로바이려행단 출정 행사가 19일 백두산에서 진행되었다.

박경일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뉴질랜드백두-한나오로바이려행단 성원들, 백두산혁명전적 강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뉴질랜드백두-한나오로바이려행단 단장 가레스 모르간이 발언하였다.

그는 백두산 출정을 따라

조선의 남쪽 끝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백두-한나오로바이려행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조선반도의 끝까지 빛나려 간 백두산 출정은 조선의 통일과 단일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이 통일되어 조선인민이 백두에서 한나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련행단 성원들의 소원이라

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며 부흥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조선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출정 행사는 끝난 다음 뉴질랜드백두-한나오로바이려행단은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단위를 안고 조종의 산백두산을 출발하였다.

본사기자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북과 남은 오랜 세월을 서로 적대시하며 불신과 대결 속에 살아왔다.

하나된 땅에서 하나된 민족의 열을 키우며 화목하게 살고 싶기에, 더는 민족분렬의 빠아픈 상처를 당하고 싶지 않기에 근 70년의 기나긴 날 통일을 웨쳐온 겨레의 합성은 더욱 커만 가고 있다.

북과 남이 민족과 통일을 우선시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나갈 때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지 고야 말 것이다.

본사기자 명금통

에 즐음하여 15일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북남공동선언의 기초之上에 조선반도의 대단합으로 나라이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기 위해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또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여 북남관계개선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행을 위한 현실 참여 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설 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같은 날 서울 광장에서는 남조선의 각계 각종 인사들의 참가 하에 《광복 68주년 8·15 자주통일대회》가 열렸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회장은 대회에서 《우리에게 8·15는 자주독립과 평화통일 협의회》와 120여개 참가 단체 일동의 명의로 8·15 조국해방 68돐을 축하하는 길은 자주에 있고 사상과 리념, 체제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에 있다.

이렇듯 8월에 뜨겁게 고조된 평화통일 열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을 내외에 힘 있게 표시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초之上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투쟁한다면 조국해방을 암아온 8·15의 력사적 사변처럼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방의 날 기념 민족공동행사 북남공동호소문이 발표된 것도 8·15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15일 북과 남의 각자에서 다른 대체로 운동행사들로 진행되었다. 북의 각자 사찰에서 《8·15 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동시법회》가 일제히 봉행되었다. 법회들에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뜻을 표시하는

얼마전 나는 조선중앙TV에서 유인람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돌아온 9명의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좌담회를 보게 되었다. 문득 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올해 4월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북으로 다시 온 26살의 청년 리혁철이다.

2007년 『탈북』 하였던 그 청년이 최대열점지역으로 꿈하는 연평도에서 폭음을 내던지는 사생결단의 모험까지 감수하며 다시 북에 온 리유는 무엇일까.

9명 『탈북청소년』들의 좌담회는 나의 뇌리속에 계속 잡재해 있던 『탈북자』들의 재입북리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최근 『탈북자』들이 떠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탈북자』들로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들이 남에 간 리유는 대체로 잘 먹고 잘 살수 있을것이라는 이유에 미리 지내고 기때문이라 생각된다.

『구약성서』의 창세기편에는

존엄을

그들이 다시 온것은 무엇보다 존엄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먼저 살아본 공화국은 생활상 부족한것은 있었어도 인간의 존엄이 있는 사회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존엄에 사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똑같은 사회적대우를 받지만 이남에서는 돈이 없이는 존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돈이 인간의 존엄우에 군림하고 돈이 없으면 살수도 없고 개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야 하는것이 이남사회의 현주소이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남조선에 『푸어족』이라는 말이 류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가난하다』(poor)는 영어단어를 붙여 만든 말인 『푸어족』은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들거나 가난에 놀라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였다.

다시 찾아온 집 – 삶의 보금자리

『에덴』이란 말이 나온다. 『에덴』에서는 사장월 보기만 해도 흐뭇한 맛좋은 과실들이 주렁질뿐 아니라 아름다운 새들의 청아한 지저귐소리 또한 루른 숲속에서 그칠새 없이 울린다.

『에덴』이란 말은 그리스도교인들속에서 근심걱정없이 살아가는 『지상락원』을 뜻하는 표현으로 되고있다. 아마도 『탈북자』들의 눈에는 남쪽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에덴』으로 비쳐졌던 모양이다. 현재 지금 그들이 한때 자신들이 배반했던 조국을 찾아 『탈남』하고 있다.

왜서일가. 나는 북파 남 두 제도에서 다 살아본 재입북 『탈북자』들의 중언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했다.

찾아

오늘 남조사회에서는 20~40대의 60%이상, 소상공인의 80%이상, 노동자의 68%가 자기를 『푸어족』이라 하고있다고 한다.

몇해전에 나는 남쪽에서 몇년간 살아본 한 일본인과 마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기미라도 보이면 철저하게 견제하고 방해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레이 자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고 말하였다.

이런 형편에 『탈북자』들의 처지는 얼마나 비참할것인가. 공화국에서 동등한 사회적지위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습관된 그들이 남조선에 가서 생존경쟁의 마당에 뛰어들어 하층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자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후회가 막심했을지 가히 상상이 된다.

『나는 돈에 팔린 가련한 노예

나 다름없었다. 지하철도역과 아빠트복도, 승강기청소 등 일거리라면 닥치는대로 하였다.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는데 여기에 걸음걸음 감시와 전화도청까지 곤질기게 계속되어 공포와 불안, 초조감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에덴』이란 말은 살았을 때는 남쪽에서 존엄을 짓밟히며 무주고혼이 될바엔 비록 어렵게 살아도 존엄을 갖고 평등하게

사는 북에 다시 가자. 이런 각오를 갖고 떠난 『탈북자』들의 『탈남행』이었던 것이다.

정에 주려 정을 찾아

『탈북자』들이 다시 북을 찾았을 또 하나의 이유는 따뜻한 인간의 정이 그리워서가 아닌가 한다. 연평도에서 단신으로 『탈남』한 리혁철은 어선을 타고 해주항에 도착한 순간 남쪽에서 어기저기 방황하며 찾고 그리던 살뜰한 정을 뜨겁게 느꼈다고 북에 온 소감을 말했다.

사실 정이라는것이 눈에 보이는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다. 예사람들이 이르기를 정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락도 있다 했거늘 인생활을 돌아가는 기계에 비유하면 정은 윤활유나 같다고 말할수 있다.

특히 우리 조선민족은 정에 살고 정에 울고웃는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다. 뮤탈리정이 많은 조선민족이기에 19세기 조선에 와있던 프랑스선교사들도 로마교황청에 보내 보고서에서 조선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정이 특별히 많고 정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은 정으로 웅치면 로마병사보다 더 강하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허나 이남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황금민족주의는 정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조선의 『노컷뉴스』는 올해 설령절날에만 해도 30대 남성이 자기에게 밥을 바로 먹으라는 편장을 준다고 61살 난 어머니를 목졸라죽인 사건, 솔에 취해 길가던 80살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때려죽인 사건,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의 입을 헤프로 막아 살해한 사건, 소란스럽다고 서로의 시비

누워있습니다.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은 찬밥신세로 살아야 하는 행정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희망을 갖고 잘살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저희들에게는 헛된 꿈이라는것을 느꼈습니다.』

『탈북자』들은 사람들사이에 화목과 따뜻한 정이란 조금도 찾을수 없는 인정의 사막지대인 남조선의 현실을 겪고나서야 그곳이 환상의 『에덴』이 아님을 절감한다.

공화국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피속에 깊숙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공화국에서 부모없는 자식을 데려다 키우고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처녀들이 불구로 된 영예군인들의 반려자가 되는 일들은 수다하여 보통 레상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의 눈곱을 적신 일은 한가지 있다. 조국방문차로 평양에 머물던 작년 여름이였다. 그때 나는 TV에서 한 학생의 미

동안 가슴에 남아있다는것이다. 이런 인간사랑과 화목, 따뜻한 정이 선호되는 공화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너 아니면 나』라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남조사회에 어떻게 쉽게 적용될수 있었겠는가.

정이 있으면 꿈에도 보인다고 『탈북자』들은 꿈속에서 매일같이 고향과 부모처자, 고마운 이웃들을 그린다고 한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는 오두막 이스의 이런 대사가 나온다.

『고국에 있는 자기 집 지붕우에서 나오는 희연기를 먼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탈북자』들의 심정이 지금 그려하다고 본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온 자신들을 원망하며 북으로 돌아가고싶은 갈망으로 방황하고 있다.

지금 『탈북자』의 80%가 북으로 다시 오고싶어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을 배반한 엄청난 죄의식때문에 결심을 못 내리고 있을것이다. 공화국은 죄를 짓고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용서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이들의 죄과를 백지화하였다.

공화국에 다시 온 박정숙녀성은 지금 아들며느리와 함께 여생을 편히 보내고있다. 이는 지난 해 북에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그녀만의 인정의 사막지대인 남쪽에서 『탈북자』들의 신세는 더욱 비참하다. 지난해 공화국의 품에 안긴 『탈북』녀성 고경희는 기자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조선민족은 정에 살고 정에 울고웃는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다. 뮤탈리정이 많은 조선민족이기에 19세기 조선에 와있던 프랑스선교사들도 로마교황청에 보내 보고서에서 조선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정이 특별히 많고 정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은 정으로 웅치면 로마병사보다 더 강하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허나 이남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황금민족주의는 정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조선의 『노컷뉴스』는 올해 설령절날에만 해도 30대 남성이 자기에게 밥을 바로 먹으라는 편장을 준다고 61살 난 어머니를 목졸라죽인 사건, 솔에 취해 길가던 80살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때려죽인 사건,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의 입을 헤프로 막아 살해한 사건, 소란스럽다고 서로의 시비

는 눈곱을 적신 한가지 있다. 조국방문차로 평양에 머물던 작년 여름이였다. 그때 나는 TV에서 한 학생의 미

거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볼수 있었는데 내용인즉 10살짜리 소학생이 물에 빠진 8살 난 하급반 학생을 건져내고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였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른도 아니고 10살의 아이가 자기 생명을 내던지며 친동생도 아닌 동교의 하급반 아이를 살려내다니...

너무도 큰 놀라움과 감동에 동영상을 보는 동안 어려운 눈물을 흘렸다. 주지의 사실은 공화국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남을 위해 바치는것이 몸에 베였다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북을 다녀온 동포들의 소감중

공통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생활상 어려운것이 많아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북주민들의 인간미는 곳곳에 넘쳐나고 오래

번져지는 대규모

초불민심이 현

보수(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초불정국』이 진보와 보수사이의 격렬한 싸움으로 번져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국정원정치기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국민들은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국민들은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심상치 않게

벌써지는 대규모

초불민심이 현

보수(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초불정국』이 진보와

보수사이의 격렬한 싸움으로 번져지고있다.』

이날 수원역과 광주시청, 전라북도 도청을 비롯한 경

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이르는 꼬마다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시위투쟁과 선전 활동, 기자회견들이 있었다.

본사기자



《국민들은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대 선개업』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참

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16일 통합진보당의 한 의원은 당국이 8.15에서 시위 참가자 300여 명을 물대포를 앞세워 통행했다고 하면서 『대검 공안부는 참가자인 뿐아니라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배후 세력에 대응하도록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사건관련자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무례하게 놀아댄 것도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5년 전 정국이 떠오른다. 초불집회 때 허명박(정부)은 국민에게 물대포로 응수했다. 이후 MB는 국민에게 사죄했다. 현(정부) 들어 처음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이 시위자를 런행했다. 5년 전과 똑같다. 임도 달고 귀도, 눈도 달은 물대포로 행으로 대응하느냐.』고 경고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 반전투쟁 전개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청년련대, 사회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청년단체들이 19일

통일군기지 앞에서 공동기

연습을 가지고 북침전쟁

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

을 고조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

체들은 보신각앞에서 전쟁연

습중지를 요구하는 선전활동

을 벌렸다.

이날 수원역과 광주시청,

전라북도 도청을 비롯한 경

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대동강반에 서의 즐거운 하루



찌는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대동강한복판에 자리잡은 루라물놀이장은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루에도 평균 수천명이 찾아온다니 그만도 하다.

루라물놀이장에서 제일 인기있는것은 물미끄럼대이다. 아찔한 높이의 물미끄럼대정점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살같이 치쳐내리는 패

같이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고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1동에서 온 리영숙, 홍영미녀성들은 말한다.

몸도 마음도 더

루라물놀이장에 간다니까 당달아 자식들도 따라나섰다. 물놀이만으로는 성차지 않은지 물미끄럼대까지 타보

겠다고 땀을 써서 애단났다고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줄 모른다.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

이 한껏 어려있다.

물에 풍덩 뛰여들어 달아 오른 몸을 식히며 씨엉씨엉 해염쳐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젊어져

도 좋지만 한없이 모래터배 구장, 롱구장들에서 떠들썩 한 응원속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경기에 열을 올리고 있

는 청춘남녀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랑만적인것인가.

하기에 지금 사람들은 이 물놀이장에 왔다가 몸도 마음도 한결 깊어진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생활의 희열과 랑만을 더해 주는 루라물놀이장으로 하여 대동강반의 여름풍경은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본사기자 흥법식

시원한 강바람에 마음도 동실

요즘 대동강의 잔잔한 물결우로는 형형색색의 뽀트들이 오락가락한다.

하얀 손수건으로 반쯤 입을 가린채 수줍은듯 소곳이 앉아있는 처녀를 바라보는 름름한 총각, 앞에 앉은 손자손녀를 대견스레 쳐다보며 스적스적 노를 저어가는 로인, 가량잎 굽려가는 소리에

도 웃는다는 생기발랄한 처녀들, 오순도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있는 중년부부, 뽀트에 탄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님실거리는 뽀트우에 앉아 전신운동에도 제격인 노를 휘저으니 퍼끈이 절로 풀리고 시원한 강바람에 마음도 동실 떠가는 기분이다.

그래서인지 뽀트를 타려고 대동강반으로 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줄 모른다. 멀지 않은 곳으로는 식당 배 『대동강』호와 거북선 모양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유람선들이 유유히 떠다닌다. 거기서는 노래소리, 흥겨운 춤가락이 흘러친다.

본사기자



강반에 넓치는 체육열기

— 대동문공원에서 —

열기띤 응원소리가 대동강반에 울려퍼지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어세운다.

넓은 부지면적에 배구장, 롱구장, 청구장과 로라스케트장 등이 있어 하나의 종합적인 체육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대동문공원에서 배구경기가 한창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기 팀이 공격조직을 할 때마다 응원자들이 목소리를 합쳐 『하나, 둘, 잘한다!』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 대동문공원에서 —

다. 침착하면서도 긴장된 선수들의 얼굴, 포물선을 그리며 그물우를 날으는 공, 떠오른 공을 타격할듯 하다가 살짝 공으로 상대편의 빙구석에 떨구는 공격수, 또다시 터져오르는 박수소리...

흥미진진한 경기상황과 응원의 학성에 이끌려 로라스케트장에서 신바람나게 질주하던 어린이들과 공원을 산책하던 로인들도 응원자들속에 섞이여 목소리를 합친다.

알고보니 열기띤 배구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평양시 종구역 대동문동 33반의 주민들이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며

의 아름다운 화폭들이 펼쳐져 눈길을 뗄수 없게 한다.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평양의 명물』로 일컬은 평양종을 바라보느라면 선조들의 뛰여난 습기와 재능에 탄복을 금할 수 없다.

세상은 넓어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유품이라는 한없는 궁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참된 삶을 꽂피워 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어 더욱 풍치 수려한 대동강반이다.

본사기자

이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이나 일요일을 이용하여 이곳 공원에서 체육경기를 하곤 한다고 한다. 그러면 쌀쌀했던 피로도 사라지고 다음날이면 한결 기분으로 일터에 나가게 된다고 저마다 이야기 한다.

한편 공원의 한켠에 있는 롱구장에서는 평양컴퓨터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 흥미롭게 활동하고 있다.

바라볼수록 마음이 마냥 즐거워만지는 대동강반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제가 지고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자 대동강반은 또다시 새로운 정서에 젖어든다. 시원한 강비람에 창조와 혁신으로 한껏 달아올랐던 더운 가슴들을 식히고 있는가 아니면 대동강의 불아경을 떠이고 넘실거리는 물결우에 아름다운 희망을 실어보는가. 대동강반의 저녁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여준다.

그 설레임을 더해주며 랑만에 넘친 노래선율이 울리더니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가 기묘한 자태를 드러내며 물결우에 황홀정을 펼친다.

『단송』, 『배우자』와 같은 열정파 랑만이 비긴 노래에 맞추어 아름다운 화폭을 펼치는 분수의 물동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분수는 주변의 공기를 정화시킬뿐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해 주며 독특한 풍

치를 마련해 주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도시와 공원, 유원지, 청원, 진물의 설치장을 장식하는데 많이 리용되고 있다.

차광남 대동강분수관리소

땅우에도 선경, 물우에도 선경

소장의 말에 의하면 춤추는

분수는 공원이나 유원지 등

에 설치하는것이 관례로 되

고있기때문에 공화국에서처럼 강한복판에 춤추는 분수

를 설치한 평은 많지 않다

고 한다. 김일성광장앞의 대

동강반에서는 물론 옥류교와 대동교에서도 사람들이 춤추는 분수가 펼치는 재주를 감상하고 있다.

보석들을 뿐만 아니라

지각색의 신비스러운 빛

같은 변화하는 대동강의 물

면, 각종 분수들이 솟아

올랐다가는 헤쳐지는 모

습. 어찌보면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앞을 달리어 물우에 피어나는것만 같고 또 어찌

보면 오색령통한 축교가 연해연방 터져오르는것만 같다. 단숨에 수십m의 상공까지 치달아오는 주분수의 물보라도 장쾌하지만 어깨걸고 동시에 좌우로 훈족기도 하고 동시에 물꽃다발을 엮기도록 갖가지 기교를 부리는 분수들의 모습 또한 이제롭다.

말그대로 땅우에도 선경, 물우에도 선경이다. 하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인민들의 행복North Korea 모습이 없이 어찌 춤추는 분수의 아름다움을 말할수 있겠는가.

춤추는 분수를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수의 물결에 가로수를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로인들도 있다. 누구나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를 보며 사회주의 문명국의 빛을 그려본다.

본사기자 김준경



개성시에서 박연지구에 양묘장 새로 건설

개성시에서 박연지구에 양묘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1만여㎡의 면적을 가진 양묘장에는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 경제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소식에 접할 때마다 각계 종인들은

『김정은제1위원회에서 국민생활향상에 힘을 쓰고자 한다.』,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위인상이 부각되었다.』,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정치』 등 청송의 목

소리를 련이어 터치고 있다.

본사기자

풀을 따라워 양묘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열의 드높이 공사를 힘 있게 밀고 나갔다.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선행공정

들을 적극 앞세우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여러개의 나무모재배 장건

설을 다했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

는 물원천을 이용하여 자

연호름식으로 재배장들을 더 잘 꾸려 시를 풍치 수려한 도시,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켜 갈 열의 넘쳐왔다.

수백개의 콩크리트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해가림막을 씌워놓은 나무모재배 장들이

특색있게 꾸려졌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신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로선을 받들고 양묘장을 파악화가 철저히 실현된 나무모재배 장건

설을 달았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

는 물원천을 이용하여 자

연호름식으로 재배장들을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

할수 있도록 물탱크를 건

설하고 배수관과 회전식 원

형분무장치들을 설치해놓

북은 경제강국건설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남조선 언론과 각계 층의 반향

꺼있다고 지적하였다.

『통일뉴스』, 『국민일보』, 『CBS』, 『SBS』

를 비롯한 신문, 방송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한 경모의 정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향신문』, 『우리

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

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에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그분의 드림없는 의지가 비

찾으으였다고 하면서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국민 생활향상과 관련한 시설들을 돌아보신것은 매우 주목할만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의 언론들을 보아도 공화국이 경제건설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전하였다.

경제강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청송의 목소리는 각계 층속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

언론인들은 김정은제1위원회에서

태양절경축 열병식연단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

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했던 하루에 이어 김정일국방위원회의 유훈을 지켜 경제강국건설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 계신다고 견찬하였다.

세종연구소와 국방연

구원의 정세 분석가들은

김정은제1위원회의 경제분

공화국 선수권 대회
1급 남자 축구 경기
국내 체육 경기 대회로
열리는 공화국 선수권 대회에
서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 경기는 나라의 체육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체육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마다 가장 큰 규모의 국내 체육 경기 대회로
열리는 공화국 선수권 대회에
서 제일 인기는 끌고 있는 축구 경기는 나라의 체육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체육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10여 개 남자 축구 팀들이 2개 조로 나뉘어 2차례 걸쳐 조별련맹전을 벌리고 접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매 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공화국 선수권 대회

열기를 띠고 진행되는 공화국 선수권 대회 1급 남자 축구 경기

1급 남자 축구 1차 조별련맹전은 가조(체불, 4. 25, 평양, 만경봉, 묘향산)와 나조(경공업성, 리명수, 월미도, 암록강, 기관차, 선봉)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국 해방 68돐이 되는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공화국 선수권 대회 1급 남자 축구 1차 조별련맹전 첫 날 경기가 4. 25팀과 평양팀, 혜불팀과 만경봉팀 사이에 있었다. 경기장은 강팀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온 시내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로 차고

넘치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높은 축구 기술과 팀의 특성에 맞는 전술 체계들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4. 25팀과 평양팀과의 경기에서 4. 25팀의 선수들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맹공격을 들이대면서 멋진 득점 장면들을 펼쳐보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 속도를 더 올리고 4. 25팀에서 전반 20분경 16번 선수의 재치 있는 미리받기로 첫 득점을 성

공시켰다. 후반전 15분경 7번 선수가 묘하게 련락해준 공을 받아 차넣기로 성공시킨 11번 선수의 득점은 경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혜불팀과 만경봉팀의 선수들도 역습 속공으로 흡족들에 의한 문전결속의 기회들을 련이 마련하면서 경기를 박력 있게 진행하였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아슬아슬한 득점 기회들이 련이 조성될 때마다 관람자들은 선수들과 함께 응원을 벌리며 되어 열기띤 응원을 벌렸다.

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4. 25팀이 평양팀을 2:0으로 이겼으며 혜불팀과 만경봉팀은 1:1로 비겼다.

첫 날 경기에 이어 1차 조별련맹전의 일정에 따라 두개 조에 당첨된 팀들 사이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1차 조별련맹전은 24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두개 조의 3위, 5위권에 든 팀들 사이의 직선 경기가, 26일에는 두개 조의 1위, 2위권에 든 4개 팀 사이의 대각경기가, 27일에는 두개 조의 4위권에 든 팀들 사이의 직선 경기가, 28일에는 3위, 4위를 가르는 경기이며 결승경기가 진행된다.

본사기자



얼마전 평양에서
는 제 15차 전국보
건부문 과학기술성
과전시회가 성과적
으로 진행되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치료사업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는 수천여 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각지에서 온 수많은 참관자들로 련이 활성화되었다.

무엇보다 최근년간 보건부

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새로 개발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평안북도 인민병원에서 개발한 치료방식과 치료제 등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든 후대용 치료기구인 프로그램 무통진 차치료기는 치료효과가 뛰어하고 빠르면서도 다기능화, 수자화, 소형화, 경량화되었을 뿐 아니라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각종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의학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홍부외과 강좌의 주광학, 류영진교원들이 개발한 다목적 홍부개창 및 폐홍기 도 참관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종전에 리옹되던 수입산 홍부개창기는 홍벽의 두터이에 따라 개창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개창너비도 주로 수술자의 경험과 눈짐작에 의거하였다. 우리가 만



있는 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평천고려약공장에서 출품한 수십 약과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외과적 질병들을 완치시킬 수 있는 삼침연고도 인기를 모았다.

평안북도 인민병원에서 출품한 대웅고열암약알, 고려의학과 학원에서 내놓은 단삼은행주약과 하늘라리니 삼결핵단일약, 고려약기술

중심에서 만든 당궁에스씨약, 의학과 학원 약학연구소에서 만든 다름간염 알약 등 많은 약품들도 원료원천이 풍부하고 원가가 적게 들며 어디에서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그밖에 이번 전시회에는 『호당당일군들을 위한 예방접종참고서』, 『고려약생 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지도서』, 『고려약제 생산품 질관리기준(GAP)』을 비롯하여 의료일군들의 자질을 높이고 림상실 천과 제약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각종 도서와 참고서들도 많이 전시되었다.

의학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제 15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나라의 보건학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남새즙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음료일뿐 아니라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며 위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남새즙을 만들려면 양배추, 무우, 홍당무, 감자, 오이, 미나리 등을 강판에 보드랍게 잘라 깨끗한 천에 말아서 즙을 짠다.

여기에서 소금이나 당분을 구미에 맞게 쳐서 마시면 진강에 좋다.

본사기자

장고는 우리 민족 음악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민족악기의 하나이다.

오랜 역사적 기간 우리 민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널리 보급되어온 민족악기의 하나인 장고는 고구려 때에 연원을 두고 있다.

고구려 벽화 무덤인 다섯 무덤 중의 4호, 5호 무덤 벽화 들에는 장고가 그려져 있는데 당시 문헌기록에서는 요고라고 하였다. 고구려 음악을 직접 계승한 밤에에서도 오고라는 이름으로 이용되었다.

요고는 고려, 조선 봉건왕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3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 선군혁명령도사와 더불어 영원 할 선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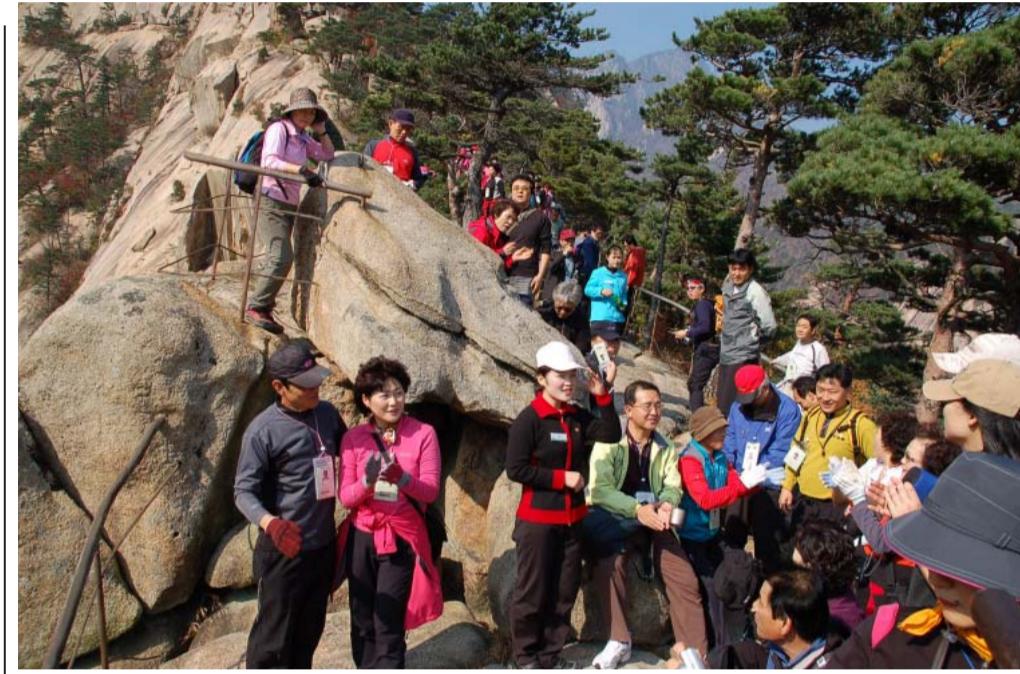
강의 시간: 1강의

강의 날짜: 주체 102(2013) 년 8월 24일

홈페이지 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 우편 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절승 금강산의 경치에 반하여

꼬니는 우리 거래가 옛날 부터 즐겨 놀던 오락이다. 꼬니에는 우물꼬니, 샘꼬니, 강꼬니, 밭꼬니, 포위꼬

물꼬니 첫 수가 제일》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꼬니는 때로 어른들도 하지만 주로는 어린이들이 놀았다. 밭머리를 마을 어귀든 집마다 드는 아

부드러니 땅바닥에 금을 굽고 놀 수 있으며

말도 잔돌이든 나무토막이든 콩알이든 아무것이나 다 쓸 수 있다. 잠시간에 놀면서도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발전시킬 때 좋은 놀이이다.

본사기자

민속놀이 꼬니

니, 장수꼬니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도 많다. 우물꼬니에서 첫 수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데로부터 상대가 어떤 수도 쓸 수 없게 하는 것을 이르는 『우

본사기자

조시기 이르러 장고라고 하였는데 그 형태가 지금의 장고와 비슷하였으며 그 후 더욱 개량되었다.

장고는 두개의 공명통을 하나나 렘 결시켜 만든 독특한 형태의 타악기로서 공명

채편이 없다.

음정과 음향관계에서 보면 북편에 비하여 채편이 약간 높고 가죽면은 공명통 직경 보다 넓게 되어 있으며 가죽막 위는 둥근 철轮回로 설치되며 거기에 가죽막을 고정

장고는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어오는 오랜 역사적과정에 그 활용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주법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소련식의 관현악에서는 지휘자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간혹 독주악기로도 쓰이게 되었다. 장고의 주법은 크게 북편과 채편으로 나누는데 각각 여섯 가지의 주법으로 되어 있다.

장고는 두개의 공명통을 하나나 렘 결시켜 만든 독특한 형태의 타악기로서 공명

채편이 있다.

음정과 음향관계에서 보면 북편에 비하여 채편이 약간 높고 가죽면은 공명통 직경 보다 넓게 되어 있으며 가죽막 위는 둥근 철轮回로 설치되며 거기에 가죽막을 고정

장고는 민족 타악기 장고

통의 왼쪽은 오른쪽보다 약간 크다. 왼쪽은 북편으로서 음정은 낮고 울림은 응장하고 부드럽다. 오른쪽은 채편이며 음정은 높고 울림은 탄력성과 발달성을 가지고 있다.

조임줄에는 조임토시가 끼여 있는데 이것으로 가죽막의 팽창도를 조절하여 음정

본사기자

피곤이 가득 몰린 얼굴에 웃음을 할 때 머금고 미음을 보면서 원림은 저마다 자기 중심의 원을 조그맣게 그려놓고 사는 이 좋은 사회에도 남을 위해 원을 크게 그려놓고 사는 선량한 처녀가 있다

그 후 원래된 원림은 밀렸던 파리를 능숙히 처리했고 상급의 신뢰를 말씀히 회복

만독감에 옮은 것이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던 원림은 단숨에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했으나 출입문은 꽉 닫긴 채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를 아침에도 깊은 밤에도 찾아갔으나 사정은 매 한가지였다. 마치도 굳게 닫긴 출입문은 자기의 않는 모습을 짖고 반겨맞아주는 풍

상상 속에 잠기운 했는데 그 상상 속의 여인은 언제나 신애였다.

저녁마다 텅 빈 집에 들어

설 때면 원림은 사슴처럼

마음씨 착한 안해가 차분한 웃음을 짖고 반겨맞아주는 풍

상상 속의 여인은 언제나 신애였다.

이때 원림은 신애 같은

처녀라면 한 남자가 일생을

아무런 부담없이 맡길 수 있

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군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견

포도처럼 즐기 없는 풍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

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 처녀가 사표를 내고 연구소에서 나가버린 것이다.

그 무렵 신애와 어기면서

변용이 연구소에 들어온 것

은 묘한 일치였다.

지난 두 달 동안 원림은 신

애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의 집은 어디론가 이사했고 손전화도 받지 않았었다.

그랬었는데 하늘에서

백조가 날아내리듯 눈앞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본사기자

하였다. 마침내 넘어질 번 했

으려는 신애의 가루한 마음

씨처럼 안겨왔다.

그동안 한 가지 좋지 못

한 일이 생겼다. 한 것은 신

애가 원림을 간호하다가 그

본사기자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주제 102 (2013) 년 8월 24일 (토요일)

통일신보

주제 102 (2013) 년 8월 24일 (토요일)